



광주예술의전당이 12월 '광주상설공연'을 오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9회 선보인다. 타악그룹 얼쑤의 '토선생 찾기' 공연 장면. <얼쑤 제공>

# 고품격 연말 공연으로 한해 마무리 알차게

'송년의 밤'부터 '명인 협연의 밤', '특별공연'까지 각양각색의 무대가 한 달 내내 펼쳐진다. 광주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물론 전막 기획으로 올 한 해 공연가를 수놓았던 무대들을 갈라-하이라이트 버전으로 상연한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문-전당)이 오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펼쳐지는 '12월 광주상설공연'이 바로 그것. 기간 내 총 9회 공연하며 합창,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날 수 있다.

첫 무대는 1일 타악그룹 얼쑤가 선보이는 광주노정기 '토선생 찾기'로 채워진다. 올해 전통예술공연 작품공모 선정작이며 고전문학 '별주부전'을 판소리 가족극으로 각색했다.

충신 별주부가 용왕의 병을 낮게 하려 여정에 나선다는 점은 같으나, 용왕이 링거를 쫓고 나타나거나 광주 마스코트 '빛들이'가 AI 버전으로 등장하

는 점은 이목을 끈다.

별주부가 작중 '육지 세상'으로 상정된 광주의 지역 명소들을 돌아다니는 점도 흥미롭다. 5·18 사적지를 비롯해 무등산 등이 배경이 된다.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상연하는 '토요상설'은 7일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하이라이트'로 막을 올린다. 차이콥스키가 독일의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을 모티브로 창작한 발레 작품.

발레단은 연말 공연으로 12월 20-21일 전당 대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정기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선 프리뷰 형식의 공연이며 주요 갈라 위주로 편성, 차이콥스키의 낭만과 서정성을 함축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이어 14일은 광주시립오페라단 '사랑의 묘약'을 볼 수 있다. 도니제티의 작품으로 '세비야의 이발사', '돈 파스칼레'와 함께 이탈리아 3대 코믹 오페



창작 뮤지컬 '나를 노래해' 중 금남로역을 배경으로 단원들이 노래하는 모습.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공>

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작품은 18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떠돌이 약장수가 사랑의 비약을 속여 팔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이번에는 전막 공연을 축약해 하이라이트 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오페라단의 해설을 가미,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1일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작 뮤지컬

'나를 노래해'가 울려 퍼진다. 청소년 문제를 다룬 이 작품은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이 음악을 매개로 마음을 표현하며 세상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렸다.

13일(오후 7시)에 각각 선보이는 프로방스 색소폰 앙상블의 '송년의 밤'도 볼거리다. 모차르트, 베토벤 및 헨델의 클래식 선율을 색소폰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며 캐럴 메들리를 통해 연말 분위기를 고

광주예술의전당 '상설공연' '토선생 찾기' '호두까기 인형' 등 12월 공연마루서 총 9회 공연

조시킨다.

20일 같은 시간에는 (사)창작극악단 도드리의 '명인 협연의 밤'이 준비돼 있다. 전통음악에 서양 음악적 요소를 결합해 광주의 과거 아름다움과 미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 '아름다운 광주' 등이 울려 퍼진다.

풍물놀이에서 버구(자루가 달린 작은북)를 치면서 추는 '버구춤'도 레퍼토리에 있다. 한국전통문화연구회 황승욱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길, 이정길 등이 출연.

전당 모성일 홍보팀장은 "올 한 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 '광주상설공연'이 12월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며 "송년의 밤이나 명인 협연의 밤과 같은 특색 있는 기획이 관객들의 다양한 예술 취향을 만족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전당 홈페이지 사전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 AI디자인 공모전' 대상에 윤라영 작 '산빛이'

광주디자인진흥원, 수상작 14점 발표...다음달까지 작품 전시

무등산 플로깅 캠페인 캐릭터를 형상화한 '산빛이' (전복대 윤라영)가 '2024 광주 AI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최근 '2024 광주 AI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14점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은 진흥원 1층 전시장에서 펼쳐졌으며 공모전 작품은 다음달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급변하는 AI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실무 분야에서 AI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영 심사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심사는 AI 활용 역량을 비롯해 창의성, 디자인 수준 등을 중심으로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대체로 출품작들이 단계별 AI 프로그램과 툴의 활용, 디자인 완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대상 수상작 '산빛이'는 무등산 플로깅 캠페인 캐

릭터로 지역적 특성과 공모전 주제를 잘 반영했다는 평가다. AI와의 협업을 매개로 상상력과 완성도를 견인한 작품이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헤리티지 광주' (신은주·박영선·하창용)도 AI를 활용한 기획, 디자인이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았으며 무등산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콘셉트 '서석탑' (이민아)은 AI 응용력과 기획력이 차별화된다는 평을 얻었다.

송진희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2024 광주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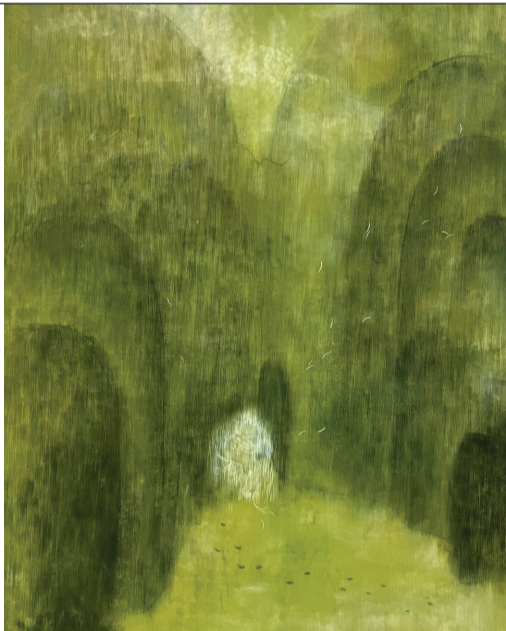


'서석탑'



'산빛이'

화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 발전에 맞춰 AI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소연 작 '초록통로'



목예림 작 '감금된 꿈'

## 나주 전통·문화 다국적 감성으로 구현

작은미술관 '경계의 시선' 전...이탈리아·중국 등 작가 5명 참여

천년 목사골 나주는 유서 깊은 고장이다. 원도심은 나주의 역사와 문화가 투영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산재한다.

올해 원도심에 들어선 나주 작은미술관은 첫 번째 미술관으로 정미소 4동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잠새방앗간'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작은미술관은 개성과 창의성이 발현된 공간이다. 읍성마을관리협동조합이 올해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한다.

나주 작은미술관이 두 번째 전시 '경계의 시선-다국적 색채'전을 진행중이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주제가 말해주듯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중국 출신 5명의 작가들로 작품 37점을 출품했다.

이탈리아 레마를 비롯해 중국의 목예림, 왕샤오난, 한국의 유소연과 전민주 작가들이다. 경계의 시선이라는 주제답게 작품은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김현희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국적의 작가들이 나주에서 느낀 전통, 문화 등을 자신들만의 창의성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며 "나주의 다채로움에서도 유서 깊은 문화가 어떻게 투영됐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전했다.

유소연 작가의 '초록통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상쾌해지는 작품이다. 초록이 우거진 풍경은 신비로움과 아울러 편안함을 선사한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통로는 가능과 불가능으로 구획되지만, 작품 속 통로는 안으로 향할수록 깊은 초록의 세상을 열어준다.

중국 목예림 작가의 '감금된 꿈'은 철창 안에 갇힌 어린 아이의 모습을 조형화한다. 아이의 상상속에는 자유로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고 싶은 새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 아이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것은 기성세대로 대변되는 편견과 선입견, 혹은 이념이나 억압된 질서와 같은 것일지 모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광주서 공연 보세요

조수미 콘서트·킹키부츠 등...30일까지 발급 15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19세(2005년 출생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수(16만 명)으로 문화예술 향유 명목으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선별하며 지원금은 클래식, 연극 관람을 비롯해 전시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터파크, YES24 등에서 협력업체처

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콘서트(대중음악, 음악 페스티벌 등)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단, 토크콘서트, 강연, 디너쇼, 팬미팅, 팬클럽, 개그, 마술 콘서트는 관람 불가) 광주는 19세 청년 1143여 명이 발급 대상이며 사용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소극장을 비롯해 광주예술의전당, ACC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년 1월 5일까지 상무지구 기본중은극장에서 상연하는 '사내연애 보고서', 12월 21일 광주아트홀에서 펼쳐지는 '2024 김복유 연말콘서트', 광주예술의전당 '2024 조수미 콘서트 in LOVE' (12월 10일), ACC '러브애틀러리 첫번째 사연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12월 24-25일) 등이 혜택 적용 가능하다.

이외 광주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킹키부츠' (12월 7-8일), '2024-25 이은미 라이브 투어 MOVE ON' (25일), '2024 적재 전국투어 콘서트 CLICHE' (28일)도 패스를 사용해 예매할 수 있다.

인터파크 티켓 또는 YES24 티켓에서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